

보성군, 전통차 체험관광 사업 추진

한국차박물관 등 22곳서 진행
다향축제 기간 500여명 참여
20인 이상 단체체험비 등 지원

보성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통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보성군은 전통차 농업시스템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차박물관, 가막재다원 등 관내 22개 지정 체험장에서 진행되며, 방문객들은 직접 전통차 만들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보성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 기간에 체험 관광객 500여명을 모집했다. 하반기에는 10월에 열리는 열선루축제와 연계해 단체 관광객 유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보성군은 이를 통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전통농업유산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적극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은 경사지 등고선에 따라 간격과 수평을 맞추는 계단형 차밭 조성 기술과 경관은 중요농업유산으로 평가를 받았다. 보성은 전국 차 재배면적



보성군이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10월까지 전통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차 만들기 체험 모습. 보성군 제공

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고려시대부터 차를 공납하는 다소가 설치됐다는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성의 등고선식 계단형 차밭은 곡괭이·삽으로 면을 고르고 새끼줄로 등고선에 맞게 수평을 유지하며 폭 2m 간격으로 층층이 조성, 과학적이고 견고하다. 바다 물결을 형상화한 듯 굽이를 이루는 계단형 차밭 경관은 지난 2013년 미국 CNN의 '세계의 놀라운 풍경 31'에 선정되기도 했다.

보성군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 상당의 차 만들기 체험비 또는 차량 임차료 중 하나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전남도 관광협회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 운영 체험장 등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의 전통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세대를 거쳐 전승돼 온 농업문화유산이자 지역 정체성의 상징이다"며 "체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보성을 찾고, 전통차의 가치가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성=백종두 기자

고흥군, 41억 투입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

고흥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가 문을 열었다.

29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직업교육·훈련·일자리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복지 거점이다.

총예산 41억원이 투입된 센터는 고흥읍 신계학림길 49-5 부지에 연면적 902.96㎡,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1층에는 장애인근로사업장과 2층에는 직업훈련실과 사무실, 3층에는 고흥군농아인협회 사무실과 수어통역센터가 입주해 활동을 시작했다.

고흥군은 고흥군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을 계기로, 장애인의 교육, 교육, 문화, 돌봄을 아우르는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단체가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모두에게 열려 있는 복지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준공식에는 공영민 군



고흥군이 최근 고흥읍에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개소했다.

고흥=제공

수를 비롯해 문금주 국회의원, 류제동 군의회 의장, 임흥빈 전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등 각계 인사와 주민, 장애인 단체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공영민 군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활동에서도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복지관과 바다비체육관 등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당당한 삶을 응원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진준원 기자

여수시, 이아포 폭격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

여수시는 한국전쟁 당시 남면 안도 이아포에서 발생한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시는 최근 희생자 유해가 매장됐 것으로 추정되는 안도리 1010-1번지 일원에서 개토제를 개최했다.

개토제에는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추도사, 제례,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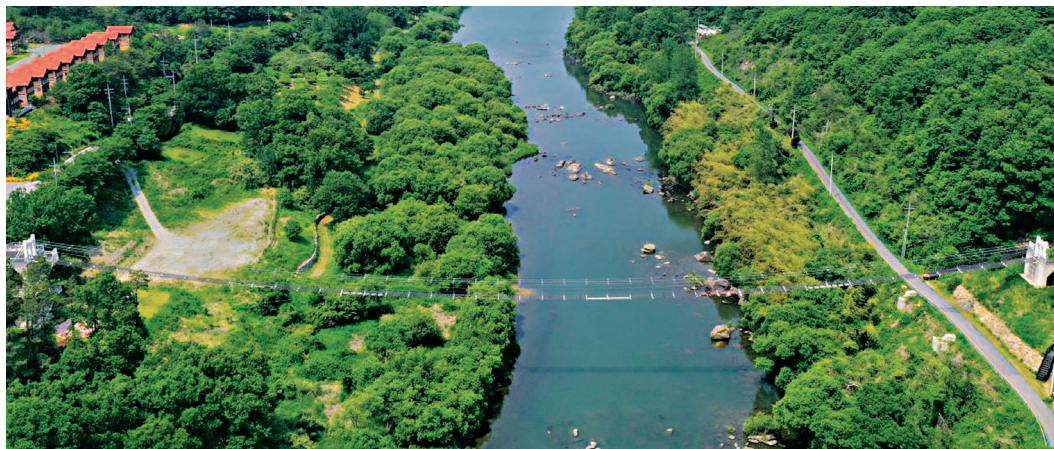
이아포 미군폭격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 3일 남면 안도 인근 해상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피난선을 미군기가 기총사격해 승선자 250여명 중 대다수가 사망했다.

유해발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됐다. 여수시는 희생자 유해 발견 시 감식과 분석을 거쳐 보존 처리 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개토제를 계기로 오랜 시간 기억 속에 묻혀 있던 민간인 희생의 진실이 밝혀지고,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곽재경 기자



곡성군 죽곡면 강빛마을을 대항강 모험시설.

곡성=제공

곡성군, 죽곡면 '대항강 모험시설' 개장

216m 다리 등 8개 체험

곡성군은 죽곡면 강빛마을에 있는 대항강 모험시설을 개장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항강 모험시설은 케이블로 연결된 총길이 216m의 다리다. 대항강 모험시설은 도전 정신과 모험심을 길러줄 수 있는 체험시설이다. 다리 중간에는 인디야나브릿지, 체스브릿지, 원반브릿지 등 8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지난해에는 체험관광상품인 '곡성챌린지' 중 하나로 시범 운영해 호응을 얻

었다.

모험시설 아래에는 도로변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길이 조성돼 있고, 인근에 크고 작은 소공원이 마련돼 있어 휴식을 하며 잔잔히 흐르는 대항강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좋은 곳이 많다.

곡성군 관계자는 "출렁이는 케이블에 안전고리를 걸고 걸어가며 색다른 모험을 경험하고 하천 위를 횡단하는 체험시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곡성을 찾은 많은 관광객이 도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곡성=류성 기자

화순군,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화순군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9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역인재 채용 지원사업은 전남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을 졸업한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인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본사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기업이며, 3명 이상의 지역인재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 다만,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50만원

씩, 최대 1,000만원의 근무 환경 개선비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9일까지이며,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화순군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관내 3개 기업이 선정돼 3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기업에는 상당한 인센티브가 지원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고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

클릭! 고향속으로



새농민회, 광양YWCA에 농산물 지정 기탁

바르게살기운동 전남광양시협의회(새농민회)가 지역사회 나눔 실천 일환으로 광양YWCA에 100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정 기탁했다.

기탁식은 광양YWCA 경로식당무료급식소에서 열렸으며, 새농민회 이승안 회장과 임원들, 이두식 농업 광양지부장, 광양YWC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농산물은 토마토, 애호박, 깻잎, 오이, 파프리카, 셀러리 등이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식재료와 푸드뱅크 꾸러미로 활용될 예정이다.

광양YWCA는 "지역 농민들의 정성이 담긴 농산물로 이웃의 식탁에 온기를 더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고흥경찰,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위촉

고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촉식은 지난해 정책자문단원으로 활동한 모범 청소년 4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신규 정책자문단원 4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은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제도 운영에 의견을 제시하고 합동 순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에 동참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흥중 김 모군은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관내 학생들을 위한 토론과 순찰 활동에 열심히 참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함께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고흥=진준원 기자



광양제철소, 스마트태그 위치추적 장치 전달

광양제철소는 최근 광양시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태그 위치추적 장치 300개를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달식은 광양경찰서 매화마루에서 열렸으며, 박종일 광양제철소 행정부사장, 송기주 광양경찰서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스마트태그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소형 장치로 블루투스, GPS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족과 보호자에게 전송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르신들의 위치를 확인해 실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박종일 행정부사장은 "지역 내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